

# 제주방언 ‘오분자기’의 어휘사\*

배영환 (제주대)\*\*

## < 목 차 >

- |                         |                         |
|-------------------------|-------------------------|
| 1. 서언                   | 3. ‘오분자기’의 방언 분화와 사전 처리 |
| 2. ‘오분자기’의 의미 관계와 어원 고찰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오분자기’를 조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들의 어원을 분석해 본 것이다. 또, 오분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복’과 ‘떡조개’, 그리고 ‘조고지’ 등과 의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문적인 분류상으로 ‘오분자기’는 ‘전복’과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제주방언 화자들은 이 두 단어를 서로 다른 어휘로 이해한다. 즉, ‘오분자기’와 전복은 지시 영역이 다른 대등어로 인식하고 있다. 또, ‘오분자기’는 ‘떡조개’, ‘조고지’ 등과 방언의 차이에 따른 동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분자기’는 기원적으로 단일어라기보다는 복합어로 볼 수 있고, 단어 형성상 ‘오분’과 ‘자기’로 분석할 수 있다. ‘오분’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먼저 ‘오분’을 표준어 ‘떡조개’와 관련시켜 ‘떡-’과 관련된 의미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떡-’은 ‘크다’와 ‘작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분자기’의 ‘오분’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오분’은 동북방언에서 확인되는 ‘오불-’[소]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자기’는 중세국어에 나타

\* 이 논문은 2015년 제주대학교 혁신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한국언어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6년 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나는 ‘자개[貝]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오분자기’는 ‘전복’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분자기’는 ‘오분자귀, 오분재기, 고망바르, 떡조갱이’ 등 다양한 방언형이 존재한다. 이 중 ‘오분’류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고망’계는 서귀포 일부 지역, 그리고 ‘떡조갱이’는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 밖에 ‘오분자기’의 사전적 기술에서 뜻풀이를 ‘작은 전복’으로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종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전복’으로 설명했을 경우, ‘어린 전복’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분자기’는 제주도 방언에서는 다른 어휘와 형태적인 유연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고립어인데, 이것은 다른 지역어의 차용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오분자기, 어휘사, 제주방언, 전복, 떡조개, 상하관계

## 1. 서언

본고는 제주방언형으로 알려진 ‘오분자기’[小全鱔]에 대해 여느 패류와 맺고 있는 의미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을 조어론적으로 분석하여 어원을 검토해 보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또, ‘오분자기’의 방언적 분포와 국어사전의 기술을 검토하여 사전 기술의 문제점 또한 살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오분자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떡조개01’의 방언(제주)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오분자기’는 ‘떡조개’에 대한 제주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오분자기’란 형태는 제주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어에서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단어이다. 그렇다고 제주방언 내에서 ‘오분자기’라는 형태와 음상이나 의미가 유사한 다른 형태가 발견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분자기’와 음상이나 의미가 유사한 제주 방언형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분자기’는

현재까지는 한국어의 다른 단어와 형태상, 의미상 전혀 연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일종의 ‘고립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분자기’에 대한 어원을 추적하면서 ‘오분자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흔히 어휘는 단어들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단어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이기문 1991: 11). 이러한 연관 관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 사이의 연관 관계는 유의어, 반의어, 파생·합성어와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가정된 어형, 즉 재구형으로부터 음운, 형태, 통사 의미상으로 분화된 단어들의 집합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sup>

그런데 단어와는 다르게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어휘는 그들 사이에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연관 관계가 어떠한 성격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어휘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에서부터 단어와 차원이 다르다. 즉, 어휘 연구의 대상은 숫자상으로 두 개에서부터 수천이나 수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어휘(소)를 대상으로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어휘의 분포에 대한 연구와 어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어휘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연구는 어휘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어휘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서도 어휘의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가 있는데, 통시적 연구는 어휘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오분자기’에 대한 의미 관계나 어원 연구는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휘소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격적인 어휘론의 하위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 이병근(2004: 18) 참조.

2) 김광해(1993: 22-23) 참조.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러한 연구도 어휘론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가 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들 사이의 공통적 경향의 탐색이 가능한 ‘집합’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휘론 속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광해 1993: 260). 즉, 특정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어휘들의 통시적 변화 과정과 방언적 분포 등을 폭넓게 다루는 것 역시 어휘론의 일부로 볼 수 있다.<sup>3)</sup>

본고에서는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오분자기’가 단일어가 아니라 기원적으로 더 분석될 수 있는 단어로 추정하고 이를 ‘오분’과 ‘자기’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오분’과 ‘자기’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오분’과 ‘자기’가 국어사적으로나, 방언사적으로 어떠한 어휘와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오분자기’와 관련된 어휘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오분자기’와 겉모습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밀접한 ‘전복’, 그리고 ‘오분자기’의 표준어형인 ‘떡조개’ 등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어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오분자기’의 의미 관계와 어원 고찰

### 2.1. ‘오분자기’의 의미 관계

‘오분자기’는 전복과(Haliotidae)에 속하는 패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일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은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참전복, 오분자기, 말전복, 시볼트전복, 까막전복’ 등 다섯 종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중 ‘오분자기, 말전복, 시볼트전복’은 남방종으로 제주도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분

3)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의 어휘사’와 같은 제목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병근(1996)을 비롯한 일련의 논의와, 황선엽(2009) 등이 있다. 또, 특정 지역 방언형의 어휘사를 논의한 것은 이태영(2012)가 있다.

자기는 ‘전복’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지만, 둘은 모양이 매우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오분자기’는 ‘전복’과 비교되곤 한다. 또, 학문적으로도 ‘오분자기’가 ‘전복과’에 속한다는 점에서 ‘전복’과 비교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분자기’와 ‘전복’이 백과사전에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sup>

- (1) 강: 복족강(Gastropoda) 목: 원시복족목(Archaeogastropoda)  
과: 전복과(Haliotidae) 속: 오분자기속(Sulculus)  
학명: *Sulculus diversicolor* supertexta

제주도에서는 ‘오분재기’, ‘조고지’라 부른다. 껍데기는 작은 타원형으로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높이는 낮다. 가장 큰 층이 껍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6~8개의 구멍이 있다. 전복의 구멍이 깔때기처럼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오분자기의 구멍은 평평하다.

조간대(潮間帶)<sup>5)</sup>에서 수심 20m 사이의 바위에 붙어 산다. 자웅이체이며 산란기는 9~10월이다. 주된 먹이는 해조류이며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다. 간조 때에 바위 밑에서 잡을 수 있으며 식용한다. 껍데기는 나전 공예의 재료로 쓰인다. 한국·일본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서귀포, 세화, 표선, 문섬, 범섬, 추자도, 성산, 마라도)에서 채집된다. 오염과 남획으로 인해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칼슘 및 철분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B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유의 씹히는 맛으로 인기가 좋다. 구워서 먹거나 해물뚝배기, 된장찌개, 죽의 재료로 많이 이용하며 ‘게우’<sup>6)</sup>이라 하여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위의 기술에서 ‘오분자기’는 전복과에 속하며, 구멍이 6~8개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분자기’의 모양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전복’과 비

4)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두산백과』와 『한민족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생물종 다양성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5)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 만조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공기에 드러나는 등 생물에 있어서는 혹독한 환경이 된다.<표준국어대사전>

6) 전복의 내장 또는 창자. ‘게우’라고도 함.<제주어사전>

교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오분자기’가 ‘전복’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밖에 ‘오분자기’는 거의 대부분 제주도에서 생산되며, 최근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설명에서 ‘오분자기’의 방언형으로 제주방언에서 ‘조고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실제 제주방언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방언 사전류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sup>7)</sup> 그런데 ‘조고지’라는 형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2) 『북한어』 『동물』 조개의 하나. 전복과 비슷하나 조금 작는데, 껍데기에 6~9개의 숨구멍이 있다. 맛이 좋고 동해에서 많이 난다.

위의 기술을 따르다면 ‘조고지’는 북한어로서, ‘조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모양이 전복과 비슷하고 숨구멍이 6~9개라는 점에서 ‘오분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해에서 많이 나고, 북한어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조고지’를 제주방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조고지’는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생물 종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도 ‘오분자기’의 유사어로 제시되어 있다.<sup>8)</sup>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조고지’는 제주방언형이라기보다는 ‘오분자기’와 비슷한 동해안 지역의 단어로 추정된다.

한편 ‘전복’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3) 강: 복족강(Gastropoda) 목: 원시복족목(Archaeogastropoda)  
과: 전복과(Haliotidae) 속: 전복속(Nordotis)

복족류에 속하며, 한자어로 복(鮑) 또는 포(鮑)라고도 한다. 《자산어보》에 복어(鮑魚)라 하였고, 《본초강목》에는 석결명(石決明)<sup>9)</sup>이라고 하였다. 일명

7) 아울러 제주어를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도 처음 듣는 단어라고 한다.

8)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생물 종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서 ‘오분자기’에 대한 유사어로 ‘조고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도 이러한 설명에 대한 출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공라(九孔螺)라고도 한다. 껍데기의 길이가 10cm 이상으로 크고 모양이 타원형이다. 표면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들은 뒤쪽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막혀 있다. 열려 있는 구멍은 출수공(出水孔)이며 배설물도 이곳으로 내보낸다.

간조대에서 수심 5~50m 되는 외양의 섬 지방이나 암초에 서식하며 해조류가 많이 번식하는 깨끗한 바다에서 서식하기 좋다. 자웅이체이며 외부 생식기는 발달되지 않았다. 난생으로서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산란하여 수정한다. 생식선(生殖腺)이 황백색인 것이 수컷이고 녹색인 것이 암컷이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껍데기는 1년 동안에 2~3cm 정도 자란다. 먹이로는 다시마·대황·미역·감태·파래 등의 해조류이다.

한국에는 한류성인 참전복(*Haliotis discus hannai*)과 난류성인 까막전복(*Haliotis discus*), 말전복(*H. gigantea*), 시볼트전복(*H. Sieboldii*), 오분자기(*H. diversicolor diversicolor*), 마대오분자기(*H. diversicolor supertexta*) 등의 6종이 알려져 있다.<sup>10)</sup>

위의 기술에서 ‘전복’은 대략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복류에 대한 총칭어로 쓰이고, 아울러 ‘전복’의 한 종류를 지시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총칭어 ‘전복’에 대해 그 하위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까막전복’, ‘말전복’, 그리고 ‘오분자기’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1)</sup> 이 가운데 ‘까막전복’은 이른바 ‘둥근전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채집된다.<sup>12)</sup> 그러므로 제주방언에

9) 전복의 껍데기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성질이 차고 맛이 짜서, 간의 열을 내리고 간 기능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표준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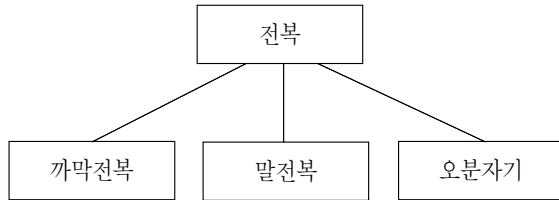
10) 한편 전복은 주로 갈조류를 먹고 살며 양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전복, 점복, 생복’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각장은 2년생은 약 5cm, 4년생은 약 10cm이고 큰 것은 20cm 가까이 되고, 일본과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한다(권오길·박갑만·이준성 1993: 226)고 한다.

11)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1) 전복과의 조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복과의 하나. 껍데기의 길이는 10~20cm이고 타원형이며 갈색 또는 푸른빛을 띤 갈색이다. 껍데기 입구는 넓고 겉에 구멍이 줄지어 나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는 ‘까막전복’을 ‘둥근 전복[黑鰓]’으로 표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친진, 아야진, 주문진, 경포대, 안인, 후진, 구룡포, 강구, 울산, 부산, 남해도, 삼천포, 거제도, 거문도, 인천 근해, 서산, 안면도, 만리포, 외연열도, 안마군도, 대흑산도, 소흑산도, 백령

서 ‘전복’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분류로는 ‘까막전복’을 지시한다. 결국 이러한 설명을 통해 볼 때 학문적으로 ‘오분자기’는 전복의 하위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전복’과 ‘오분자기’는 의미 관계상 상하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전복’과 ‘오분자기’의 학문 분류상의 의미 관계



위와 같이 ‘전복’은 상위어에 해당되고, 그 아래에 ‘까막전복, 말전복, 오분자기’ 등과 같이 하위어가 존재한다. 즉, 상위어 ‘전복’에 대해 여러 하위어가 있고, 그 하위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분자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인 분류이고, 제주방언 화자들은 ‘전복’과 ‘오분자기’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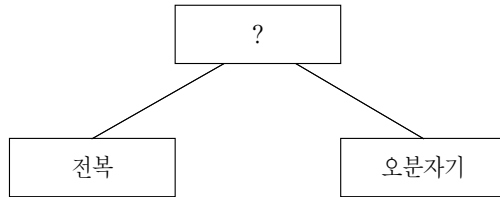
제주방언 화자들이 ‘전복’과 ‘오분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크기와 구멍의 개수이다. ‘오분자기’는 크기가 ‘전복’보다 작다. 또, 패각에 나 있는 구멍의 개수를 통해 ‘오분자기’와 ‘전복’을 구분하기도 한다. ‘오분자기’는 표면의 껍질에 나 있는 구멍의 개수가 ‘전복’보다 적다. 결국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오분자기’와 ‘전복’을 구분한다.<sup>13)</sup> 그러므로 화자들은 ‘전복’과 ‘오분자기’를 서로 다른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방언 화자의 인지 속에는 ‘전복’과 ‘오분자기’가 서로 의미 관계상 대등 관계에 있으며, 서로 지시하는 의

도, 서귀포, 모슬포, 삼양, 성산포, 추자도, 울릉도’ 등에서 채집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13) 이 밖에 ‘전복’은 양식을 하지만 ‘오분자기’는 양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분자기’가 나는 철이 대체로 음력 3월 중순 경으로 국한되어 있다.

미 영역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종은 비슷하여 두 종을 포괄하는 상위어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제주방언 화자들이 인식하는 ‘전복’과 ‘오분자기’의 의미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2> 제주방언에서의 ‘전복’과 ‘오분자기’의 의미 관계



위에서와 같이 ‘전복’과 ‘오분자기’는 매우 유사한 종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제주방언 화자들은 서로 다른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전복’이나 ‘오분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어는 빈칸으로 존재한다. 물론 이보다 더 상위어에 ‘조갱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갱이’는 이 두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주방언에서 ‘조갱이’는 ‘전복’이나 ‘오분자기’의 직접적인 상위어로 인식되기보다는 모든 조개류를 포괄하는 총칭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분자기’는 ‘떡조개’와 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떡조개01’<sup>14)</sup>의 제주방언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제주방언에서는 ‘오분자기’의 또 다른 방언형으로 ‘떡조갱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도 표준어의 ‘떡조개’와 제주방언의 ‘오분자기’는 서로 동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갱이’는 조개에 대한 제주방언이기 때문에, ‘떡조갱이’는 바로 ‘떡조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떡조개’

14) 떡조개02는 ‘흰조개’, 즉 ‘백합’의 일종으로 ‘오분자기’와는 종이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떡조개02에 대해 “백합과의 연체동물. 껍데기의 길이는 7cm 정도이다. 몸은 거의 원형으로 각정(殼頂)이 앞으로 굽어 있으며, 식용한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라고 뜻풀이되어 있다.

와 ‘오분자기’는 바로 방언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방언의 ‘오분자기’는 의미 관계를 살펴볼 때 ‘전복’과는 동위 관계를 이루고 있고, ‘떡조개’와는 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분자기’와 ‘전복’은 학문적인 분류상으로는 상하 관계를 이루지만, 이 방언 화자들은 서로 다른 종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오분자기’와 ‘떡조개’는 방언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조고지’ 역시 방언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동의어에 포함된다.

## 2.2.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과 어원 고찰

‘오분자기’라는 단어는 기원적으로 단일어일 가능성과 복합어<sup>15)</sup>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어떠한 구성을 갖는지 분석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전복’이 한자어 ‘全鰓’에서 연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분자기’에 대해 어원을 연구하거나 형태소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김순자(2014: 20)에서 ‘오분자기’의 제주방언형인, ‘오분자기’, ‘오분제기’, ‘오분작’ 등에 대해 {오분자+아기, 오분자+에기, 오분자+악}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분자-}의 뜻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접미사 ‘-아기, -에기, -악, -앵이’는 축소사라고 보았다. ‘오분자’+‘아기’로 분석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아기’, ‘-에기’ 등을 축소사로 보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오분자기’의 외형적 특징이 ‘전복’에 비해 작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小’의 의미인 축소사 ‘-아기’를 지나치게 의식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선행어를 ‘오분자’과 같은 형태로 분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분자’과 같은 음절 구조가 국어의 일반적인 음절 구조와는 다르며<sup>16)</sup> 그 의

15) 본고에서의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어원 분석을 하면서 구성 요소가 어근성인지 접사인지 구분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편의상 ‘복합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16) 물론 ‘앉-[ㅅ]과 같이 ‘ㄴ’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지만 ‘앉-’ 역시 ‘앗-’이 좀 더 기원적인 형태라면 ‘ㄴ’과 같은 자음군은 국어사에서 그리 흔한 구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 또한 미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2009: 677)에서는 ‘오분자기’를 ‘오분-자기’와 같이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시 방법은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이 ‘오분’과 ‘자기’로 분석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다만, ‘오분-자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연구에서는 ‘오분자기’에 대한 어원은 물론,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이 단일어인지 아니면 복합어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분자기’의 어원이나 내적 구성을 단일어일 가능성과 복합어일 가능성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분자기’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아야만 하지만 ‘오분자기’의 직접적 선대형이라고 할 만한 어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분자기’의 어원을 찾을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기의 여러 사전류에서도 ‘오분자기’와 관련된 어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분자기’와 관련된 어형이 사전류에서 처음 나타나는 경우는 한글학회 큰사전(1957: 2203)에서이다.

#### (4) 오분-재기 ((동)) =떡조개

위의 예에서 ‘오분자기’에 대한 표제어를 ‘오분재기’로 제시하고 있고, 그것의 뜻풀이 항에서는 ‘떡조개’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는 ‘오분자기’에 대한 그 당시 일반형이 ‘떡조개’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오분자기’와 ‘떡조개’가 형태상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오분자기’와 ‘떡조개’는 그 음상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전에서 ‘오분자기’를 ‘오분-재기’로 표시했다는 것은 ‘오분자기’가 단일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국어사의 자료에서는 ‘오분자기’의 어원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오분자기’의 통시적인 변화형 중에는 ‘오분자기’의 어원을 알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분자기’와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단어의 변화 과정을 통해 ‘오분자기’의 어원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분자기’와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떡조개’와 ‘전복’의 변화 과정 속에서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과 연관이 될 만한 형태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떡조개’와 ‘오분자기’의 의미상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떡조개’ 역시 이전 시기에 이에 대응하는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떡조개’는 단일어가 아니고 ‘떡’과 ‘조개’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행 요소 ‘떡’의 의미는 ‘오분자기’의 ‘오분’과 의미가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떡조개’의 ‘떡’에 대해 접두사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떡-’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작은’, ‘어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떡잎/떡조개.

위의 예를 통해 볼 때, 일부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떡’이 결합하여 ‘떡-’이 해당 명사의 ‘작은’이라는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에는 ‘떡잎’<sup>17)</sup>과 ‘떡조개’가 있다. 이 밖에 ‘떡마래미’<sup>18)</sup>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떡조개’의 ‘떡’을 ‘작은’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떡-’은 ‘크다’[大]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홍기옥(2014: 162)에서는 남해안의 어류명에 보이는 ‘떡망시이’, ‘떡술미’, ‘떡전어’의 ‘떡-’은 기본 형태보다 더 넓적하고 크기가 큰 형태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바닷가 생물명 이외에도 ‘떡두꺼비’<sup>19)</sup>나 ‘떡개구리’<sup>20)</sup> 등에 결합된 ‘떡-’도 사전의 뜻풀이를 감

17) 씨앗에서 움이 트면서 최초로 나오는 잎. 보통의 잎과 형태가 다르고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 겉씨식물에서는 여러 장, 속씨식물의 외떡잎식물에서는 한 장, 쌍떡잎식물에서는 보통 두 장이다.<표준국어대사전>

18) 마래미보다 작은, 방어의 새끼.<표준국어대사전>

안할 때 ‘크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된 ‘떡-’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떡-’의 의미

- ㄱ. 일부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작다’의 의미를 가짐
- ㄴ. 일부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크다’의 의미를 가짐

위의 예를 통해 볼 때 ‘떡-’은 생물체의 크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와 ‘오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분’이 크기가 ‘작음’이나 크기가 ‘큼’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분’을 ‘크기’와 관련지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오분’이 ‘크다’ 또는 ‘작다’와 관련되는 용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떡조개’와 ‘오분자기’의 의미상 대응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오분자기’와 학문적으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는 ‘전복’은 ‘오분자기’의 의미 분석에 어떠한 암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전복’은 ‘오분자기’와 모양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의미상 서로 관련이 있어, ‘오분자기’의 어원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전복’에 대한 형태는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전복’과 관련된 이른 시기 형태는 다음과 같다.

(7) 鰓曰必<계림유,4b>

위의 (7)은 계림유사에서 확인되는 예이다. 鰓曰必에서 그 당시 ‘전복’[鰓]에 대응되는 우리말 어형으로 ‘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신항(1991: 57)에서는 \*piat 정도로 재구하였고, 강영봉(2003: 8)에서는 이를 통해 제주방언의 ‘비바리’의 ‘비’를 ‘必’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해하였다. 곧 ‘비’를 ‘전복’의 옛 형태로 본 것이다. 이러한 ‘비/빚’은 현재 제주 방언에 그 흔적을

19) 크고 튼실하게 생긴 두꺼비.<표준국어대사전>

20) 팔다리를 쭉 펴고 넓적하게 된 개구리.<표준국어대사전>

남기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8) ㄱ. 빗창: 전복을 따는 데 소용되는 도구.
- ㄴ. 암핏: 전복의 암컷.
- ㄷ. 수핏: 전복의 수컷.
- ㄹ. 수핏여(‘수핏’이 많이 서식하는 여21): 성산읍 신양리의 바다 이름.
- ㅁ. 빗여(전복이 많이 서식하는 여): 제주시 도두동과 성산읍 산양리의 바다 이름.

위의 예는 강영봉(2003: 9)에서 제시된 것인데, 위의 ‘빗창’이나 ‘빗여’와 같은 예에서는 ‘빗’이 복합어의 전부 요소로 나타난다. (8 ㄴ, ㄷ)의 ‘암핏’과 ‘수핏’ 등은 선행 요소 ‘암’과 ‘수’가 중세국어에 ‘ㅎ’말음 명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빗’이 후행 요소로 분석된다. 위의 예를 통해 볼 때, 제주방언에서 ‘비/빗’은 일부 단어의 선행 요소나 후행 요소로 결합하여 ‘전복’의 의미를 갖는다고 요약된다. 이 밖에 홍기옥(2014: 122)에서 ‘전복’에 대한 전남 해남군의 방언형은 ‘비쭈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때의 ‘비쭈개’는 강영봉(2003)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빗+쭈개’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행 요소 ‘비/빗’은 ‘전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쭈개’는 ‘조개’에 고모음화 현상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방언뿐 아니라 남부 방언에서 ‘전복’에 대한 어형으로 ‘빗/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전복’을 뜻하는 단어로 “비”나 “빗”과 같은 형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러한 예는 후기 중세국어에서나 이후의 문헌 자료에서 좀처럼 확인되지 않고, 위의 예에서처럼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sup>22)</sup> 그런데 중세국어 이후의 문헌 자료에서는 ‘鰆

21) ‘여’는 제주특별자치도(2009)에 따르면 ‘바닷가 바다가 얇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를 말한다.

22) 전복에 대한 전국적인 명칭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는 ‘전복’의 명칭에 대해 ‘생복(서산, 보령, 명주, 대포), 전복(여수, 고흥, 거제, 울산, 목호), 점복(거진, 남해), 전복(태안, 소원, 해남), 비쭈개(해남), 후팡(월도)’ 등으로 설명

에 대응하는 어형으로 ‘싱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싱포’는 한자 ‘鰮’ 뿐만 아니라 한자어 ‘鰮魚’에 대응하는 어형으로 나타난다.

- (9) ㄱ. 鰮 싱포 박<훈몽,상,10b>  
 ㄴ. 鰮魚 싱포. 石決明 싱포.<역어,하,37a>  
 ㄷ. 鰮魚 싱포<방언,해부방언,19a>

위의 예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전복’ 관련 어형이다. 위의 예에서 현재의 ‘全鰮’에 해당되는 한자는 ‘鰮’이나 ‘鰮魚’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어는 ‘싱포’였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훈몽자회』의 ‘싱포 박’은 이 당시 ‘鰮’의 한자음이 ‘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 한자음은 중국의 廣韻 시기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sup>23)</sup> 한편, 오늘날 ‘전복’과 음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형태는 17세기 국어 자료에 처음 나타난다.

- (10) ㄱ. ㅁړ 조괴과 ㅁړ ㅁړ과 ㅁړ과 전복과 ㅁ과 ㅁ과 ㅁ과 구으니<두창집,下,42a>  
 ㄴ. 조괴 ㅁ과 전복 싱복 ㅁ ㅁ 호도 구은 ㅁ<두창경,13a>  
 ㄷ. 싱복 生鰮 ㅁ복 熟鰮 전복 全鰮<왜어,하,25b>  
 ㄹ. 싱복 一名 全鰮 (石決明肉)<의중,42b>

위의 예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인데, 위의 예에서 ‘전복’과 같은 어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전복’은 오늘날 ‘전복’의 의미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전복’은 충청어이면서 날것이나 익힌 것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쓰이지만 (10 ㄷ)의 예를 볼 때 그 시기에는 전복의 [익힘 여부]에 따라 달리 불렀음을 볼 수 있다. 『왜어유해』에서의 ‘싱복’과 ‘ㅁ복’, 그리고 ‘전복’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살아 있는 전복을 ‘싱복’이라고 하였고, 삶은 전복을 ‘ㅁ복’, 그리고 말린 전복을 ‘전복’으로 불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약전이 기술한 『자산어보』의 다음과

하고 있다.

23) 鰮 <廣韻> 蒲各切 鰮.<漢韓大辭典>

같은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 (11) 복도 조개류이다. 조가비 색도 조개와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복 껍데기를 ‘가짜조가비’라 한다. 그 크기가 크고 작아 하나같지 않다. 살아 있는 것은 ‘생포(生包)라 하고 말린 것을 ‘전복’이라고 한다. ‘포’란 방언으로 ‘전복’이다.(김홍석 2008: 75)

이상의 예를 통해 볼 때, ‘오분자기’는 ‘전복’과 모양이 비슷하고, 생물학적 분류상으로 관계가 있을 뿐, 단어 형성상으로는 ‘전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사실은 ‘전복’을 지시하는 어형 가운데 통시적으로 ‘오분자기’의 어형과 직접적으로 연관지를 만한 어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오분자기’와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에서는 ‘오분자기’의 어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분자기’의 어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분자기’는 단일어라기보다는 여타 사전류의 정보를 참고할 때 복합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복합어로 본다면 그 내적 구성을 ‘오분’과 ‘자기’의 결합으로 볼 수 있고, 이 ‘오분’과 ‘자기’의 의미를 밝히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분’과 ‘자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오분’은 일견 후속 성분을 수식하는 요소이고, 후속 성분 ‘자기’는 피수식어로 볼 수 있다. 그중 ‘자기’는 기원적으로 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분자기’라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오분자기’는 조개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원상으로 ‘조개’[貝]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조개’나 조개의 껍질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인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민수 편(1977: 925)에서는 ‘조개’의 어원에 대해 중국어 차용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砵磔 [tʰjɑŋjɑ] (상고음)에서 ‘자개’[貝] (훈몽 중 15)와 ‘조개’[蛤] (능엄 7:83)/‘조개’[細

24) 물론 이러한 논의는 뒤에서 ‘오분자기’가 ‘전복’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할 것이다.

螺[월석 2:51] 등이 분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 ‘자개’와 ‘조개’는 모음 교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자개’는 현대국어에 ‘자개’로, ‘조개’는 ‘조개’로 변화되었는데, ‘자개’<sup>25)</sup>는 대체로 조개의 껍테기를 의미하고 ‘조개’는 말 그대로 조개류를 총칭하는 어형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나 근대국어 초기의 시기까지는 ‘자개’와 ‘조개’가 오늘날과 같이 의미가 분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2) ㄱ. 貝巴 자개 파<훈몽,상,10b>  
 ㄴ. 貝 자개 패<훈몽,중,15a>

- (13) ㄱ. 새 조개 득외면(雀爲蛤)<능엄경,7,83b>  
 ㄴ. 蛤 조개 합 蜆 조개 리<훈몽,상,10b>

- (14) ㄱ. 貝 패즈 패<신유합,上,14b>  
 ㄴ. 紫貝 굴근 자개 貝子 효근 자개<동의,2,10a>

위의 예에서 ‘자개’는 ‘貝巴’나 ‘貝’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조개’는 대체로 ‘蛤’에 대한 언해로 나타난다. 그러나 (13-ㄱ)에서 ‘貝’에 대해 ‘패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현대국어의 ‘패자’<sup>26)</sup>는 조개의 일종이다. 위의 사실을 감안한다면, 小倉進平(1934/1975: 98)에서와 같이 ‘자개’나 ‘조개’는 동일한 기원에서 모음교체에 의해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개’에 대한 전국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오구라 신페이(2009: 396-397)에 제시되어 있는 ‘조개’의 방언형을 나타낸 것이다.

25) 금조개 껍테기를 썰어 낸 조각. 빛깔이 아름다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게 썰어 가구를 장식하는 데 쓴다.

26) 복죽강의 조개. 껍테기의 길이는 8~9cm이고 달걀 모양이며, 한 개의 두꺼운 사기질로 되어 접혀 있는데 맞닿은 곳의 양쪽은 톱니 모양을 이루어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다. 등 쪽은 자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다.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15) 조개 貝

- ㄱ. 조개[čō-gɛ] (전남) 여수, 보성, 강진, 영암, 목포, 나주, 장성, 담양, 곡성, (전북)운봉, 남원, 순창, 정읍, 김제, 전주, 임실, 장수, 진안, 무주, 금산 (경남) 울산, 양산, 동래, 부산, 김해, 마산, 거제, 통영, 남해, 하동 (경북) 포항, 예천, 안동, 영주, 청송, 울진 (충남) 공주, 강경, 서천, 홍성, 천안 (충북) 청주, 보은, 영동, 충주, 단양 (강원) 양양, 강릉, 한남, 신고산,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동, 정평
- 나. 조갱이[čō-gɛŋ-i](제주) 제주·성산·서귀
- ㄷ. 조가기[čō-ga-gi] (제주) 대정
- ㄹ. 조개기[čō-gɛ-gi] (제주) 서귀
- ㄴ. 조가지[čō-ga-ji] (함남)함흥, 오로, 신흥, 홍원, 이원
- ㄷ. 조가피[čō-ga-pi](경북) 평해
- ㄷ. 조개비[čō-gɛ-bi](경남) 진주, 함양, 거창, 합천, 창녕, 밀양, (경북) 영천, 고령, 김천, (충남) 천안
- ㅇ. 쪼개비[č'o-gɛ-bi](경북) 영덕
- ㅈ. 쪼감지[č'o-gam-ji](경북) 안동
- ㅊ. 쪼감지[čō-gam-ji] (경북) 대구, 김천, 의성
- ㅋ. 자개[ča-gɛ](전북) 군산, 전주
- ㅌ. 자갑[ča-gap] (충남) 예산
- ㅍ. 자괘[ča-gɛp] (충남) 공주, 강경, 부여, 홍산, 청양, 남포, 보령, 안면도, 광천, 홍성, 해미, 서산, 오천, 천안, 조치원
- ㅎ. 짜북[č'a-bok](강원) 삼척

위의 예에서 ‘조개’의 방언형은 대체로 2음절형과 3음절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 제1음절의 모음은 ‘오’형과 ‘아’형으로 나뉘며, 또 제1음절의 자음 또한 평음형 ‘ㄷ’과 경음형 ‘ㅈ’으로 나뉘 수 있다. 또, 제3음절의 초성이 ‘ㄱ’형과 ‘ㄷ’형, ‘ㅍ’형, 그리고 ‘ㄷ’형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제1음절 모음이 ‘아’형을 보이는 것은 ‘자개’와 ‘자갑’, ‘자괘’ 등이다.<sup>27)</sup>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전북과 충남 등지에서 나타나고 공통적으로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확인된다.

‘자개’의 변화형을 감안하면 오분자기의 ‘자기’ 또한 이 ‘자개’의 변화형으

27) 물론 ‘짜북’도 있으나 이 어형은 일단 예외로 처리하도록 한다.

로 추정할 수 있다.<sup>28)</sup> 즉, ‘자개’가 ‘자기’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다만, 제2음절 ‘개’(kay)가 ‘기’(ki)와 같이 ‘ay>i’로 변화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어사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sup>30)</sup> 특히, ‘조개’에 대한 방언형 중 ‘자가X’ 등이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 이 밖에 ‘자기’는 ‘자개’와 ‘조가기’ 형태의 혼효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자기’는 ‘조개’에 대한 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분자기’의 선행 요소 ‘오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기 쉽지 않다. 다만 뒤의 ‘자기’가 명사라는 점에서 그 앞에 오는 요소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요소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오분’의 ‘-’은 관형형어미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럴 경우 ‘오부’와 ‘-’으로 더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

28) 이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맡아 주신 이레호 교수는 고향이 전북 고창인데, 부모님께서 ‘조개’를 ‘자기’라고 한다고 보충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조개’를 ‘자기’라고 하는 방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 방언에는 ‘빗제기/빗재기’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새끼 전복’을 의미한다. ‘빗제기/빗재기’의 ‘빗’은 전복의 의미이고, ‘제기/재기’는 바로 ‘조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9)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나타나는 ‘느므자기’란 단어도 어쩌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즉,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에서 ‘느므자기’를 현대국어의 ‘나문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주동(1954:323)에서는 ‘나문재’로 보고, ‘海藻나 海藻’의 일종으로 보았고, 유창돈(1964:124)에서는 ‘나무새’(채소)로 보았다. 그러한 해석은 ‘느므자기’의 ‘느므’가 ‘느뭇’에서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았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느므자기’가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느므’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적 유연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후속 성분 ‘자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느므자기’에서 ‘나문재’로의 변화 과정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자기’는 어쩌면 ‘자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조개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때 ‘바르래’와 ‘구조개’ 그리고 ‘느므자기’가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30) 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해’ 등이 충청도 일부 지역과 전북 지역 등은 ‘허’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는데, 이때 ‘오부’의 존재가 문제로 남는다. 그런데 ‘ㄴ’ 앞에서 ‘오부’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간 말음이 개음절형인 ‘오부-’형도 가능하지만 ㄹ-탈락을 감안하면 어간 말음이 폐음절 구조인 ‘오불-’과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용언의 어간으로 ‘오부-’는 전국의 여타 방언형으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오불-’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관형형으로서의 ‘오분’은 일부 방언에서 확인된다.

- (16) ㄱ. 오분<함복>[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  
 ㄴ. 오분해(온하루) 함복 온성(황대화 2011:207)

위의 (16)은 동북방언에서 확인되는 ‘오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16ㄱ)은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예이고 (16ㄴ)은 황대화(2011)에 제시된 예이다. 이 예들에서 ‘오분’은 대체로 표준어의 ‘온[쑤]’의 의미에 대응된다. 이러한 ‘오분’에 대해 곽충구(1996:50)에서는 중세국어 이전의 \*‘오불-’[쑤]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곽충구(1996:50)에서는 현대국어의 ‘온[쑤]’이 중세국어의 ‘온[ㅍ]’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원적으로<sup>31)</sup> 중부방언에서 정음 창제 이전에 ‘오뵐’>‘오온’>‘온’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고, ‘오뵐’은 기원적으로 ‘오불-’[쑤]의 관형형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정은 함복방언에 ‘오분(LH)’이라는 방언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오분’은 중세국어에서 이미 ‘봉>w’를 경험한 어사들이 이 방언에서는 어중자음 ‘ㅍ’[ㅂ]로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sup>32)</sup> 이렇게 볼 때 ‘오분자기’의 ‘오분’은 바

31) 김주필(1993: 204)에서는 현대국어의 ‘온’을 중세국어의 ‘온[ㅍ]’에서 의미가 전이되었다는 논의를 검토하면서 중세국어의 ‘온’은 성조가 거성이지만 현대국어의 ‘온’은 장음이라는 점에서 ‘온’이 ‘모든’의 뜻을 갖게 된 이유가 필연적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온’을 ‘오온 모미[渾身]’의 ‘오온’에 주목하여 사어가 된 ‘오올다’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이 ‘오온’이 ‘온’으로 축약되어 현대어에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오온’의 성조형이 [평상]형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하였다.

32) 곽충구(1994: 338~339)에서는 중세국어의 ‘봉’에 소급하는 형태소 내부의 단어들 이 육진방언에서는 ‘ㅂ’으로 유지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사에는

로 동북방언에서 확인되는 ‘오분’[𡇗]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오분자기’의 ‘오분’을 ‘오분’[𡇗]이라고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오분’이 기원적으로 ‘오불-’이라는 용언에서 온 것이라면 제주방언에서 ‘빙’이 ‘ㅂ’으로 남아 있느냐는 문제이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중세국어의 ‘빙’에 해당되는 어형들이 대체로 ‘w’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전 시기에 ‘빙’에 소급한다고 하였다(정승철 1995: 134). 이전 시기에는 ‘빙’으로 소급되던 어형들이 이 방언에서는 대부분 ‘w’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제주 방언에서도 ‘빙’이 ‘ㅂ’으로 나타나는 어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예: 다불리-[逐], 다리베[火斗], 허비- 등).<sup>33)</sup> 그러므로 ‘오분’과 ‘오불-’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오분’과 같은 단어는 제주 방언<sup>34)</sup>이나 육지의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왜 동북방언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런데 섬의 방언은 고립적이기도 하지만 물길을 따라 다른 지역과 끊임없이 교류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어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잇-’[有]이 ‘잇-’으로 나타나는데, 강화도 지역에서도 ‘잇-’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분자기’는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온 방언상의 차용어이기 때문에 제주방언의 다른 어휘와는 어휘적 유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오분’은 다른 방언에서 확인되는 ‘𡇗’의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렇게 볼 경우, ‘오분자기’는 ‘𡇗’에 대한 일종의 새김 형

‘abogi, obun, yəbiygi, kabunde, kibulda, nibe, nibiy, niburi’ 등이 있다.

33) 중세국어에서 용언의 어간 발음을 제외한 어중에서 ‘빙’을 보이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다. ‘가뵤디, 사뵤, 드뵤, 대뵤, 셔뵤, 더뵤, 치뵤, 풍류바지, 스그뵤, 늣두뵤, 마르뵤, 즈뵤/지뵤, 말뵤, 글뵤, 것뵤사, 대뵤, 쇠뵤르, 조크뵤, 필뵤, 메뵤다, 솟두뵤리다, 비뵤다, 이뵤다, 돌뵤다, 엇뵤다, 느을뵤다, 흐뵤사’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석(2013: 92)을 참고할 수 있다.

34) 정승철(1995: 139)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웁’을 육진방언의 ‘오분’[𡇗]과 비교해 보면 이 형태도 이전 시기에 ‘빙’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문헌어의 ‘오을’을 ‘오불-’로 재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태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전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 3. ‘오분자기’의 방언 분화와 사전 처리

한편 ‘오분자기’에 대한 방언형은 대체로 ‘오분제기, 오분작, 그리고 떡조갱이’ 등으로 나타난다. 기원이 전혀 다른 ‘떡조갱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오분제기’<sup>36)</sup>나 ‘오분작’ 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송상조(2007)와 제주특별자치도(2009) 등을 중심으로 ‘오분자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언 분포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37)</sup>

- (17) ㄱ. 오분자귀 [조천, 노형, 조수, 고산]
- ㄴ. 오분자기 [하례, 성산포, 가파도]
- ㄷ. 오분작 [온평, 동복, 서귀포, 우도, 수산, 가시]
- ㄹ. 오분제기[김녕, 용담, 외도, 노형, 조수, 인성, 서흥, 한동]
- ㅁ. 오분자귀[용포]
- ㅂ. 떡조갱이 [용담]
- ㅅ. 고망바르[삼양]
- ㅇ. 고망조개[법환]
- ㅈ. 바르[중문, 대정, 고산, 색달, 대포]
- ㅊ. 조개[온평, 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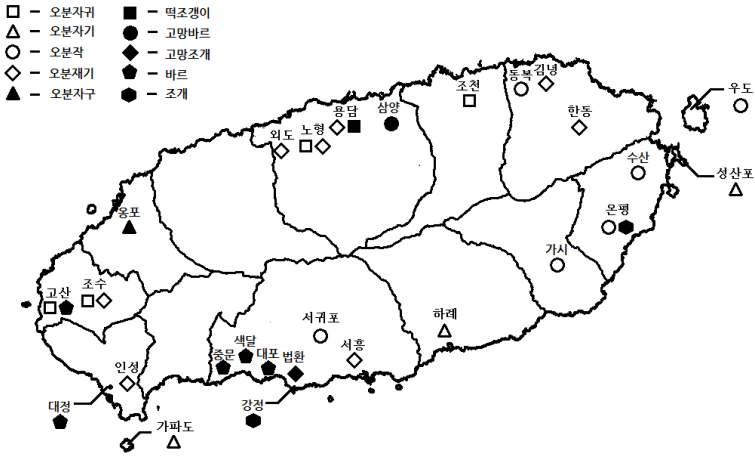
---

35) 이러한 추정이 합당하다면, 전복에 대한 우리 고유어는 ‘비/빚’ 계열이 있었고, ‘오분자기’ 계열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6) 이 지역에서는 ‘ㅂ’와 ‘귀’가 합류되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원 자료에 따라 ‘오분제기’와 ‘오분제기’가 함께 표기되었다. 현재 제주어 표기법에 따르면 ‘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고에서는 해당 자료에 나타난 원 표기를 존중하여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37) 다만 ‘오분자기’는 육지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 학계에 보고된 것이 없다.

<그림 3> 제주지역의 오분자기의 실현 양상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제주 지역에서 ‘오분자기’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오분자귀, 오분자귀, 오분자작, 오분자귀, 떡조갱이, 고망바르, 고망조개, 바르, 조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오분자기’류와 ‘떡조갱이’, ‘고망’류, ‘바르’와 ‘조개’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떡조갱이’는 표준어의 ‘떡조개’에 대응되는 형태로 보인다. 또, ‘고망’류는 ‘고망바르’와 ‘고망조개’ 등이 확인되는데, ‘고망’은 표준어 ‘구멍’[穴]에 대한 이 지역 방언형에 해당된다. ‘고망바르’와 ‘고망조개’에 나타나는 ‘고망’은 ‘오분자기’가 바위 밑, 구멍 속에 살기 때문에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명명으로 판단된다. 또, ‘바르’는 ‘바다’에 대응되는 이 지역 방언형이다. 이 방언에서는 ‘바당’과 ‘바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세국어의 ‘바다ㅎ’과 ‘바르’에 대응된다. 특히 ‘바르’는 이 방언에서는 ‘바다’나 ‘해산물’을 의미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바르’가 ‘오분자기’를 의미하기도 한다.<sup>38)</sup> ‘오분자기’가 그만큼 이 지역 바다 어장에서 대표적인 해산물이기 때문에 비롯된 명명법으로 보인다. 또, ‘조개’ 역시 지역에 따라서는 ‘오분자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온평’이나 ‘강정’ 등

38) 이러한 지적은 김순자(2014: 20)에서도 보인다.

제주도 남쪽 서귀포 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조개’의 이 지역 방언형인 ‘조갱이’에는 ‘오분자기’의 의미가 없다. 또, ‘오분자기’에 대한 방언형으로 ‘고망조갱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개’나 ‘바르’ 등은 ‘고망조개’나 ‘고망바르’에서 선행하는 ‘고망’이 생략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떡조갱이류’는 일부 지역에서, 그것도 제주시 북쪽 지역에서만 확인되는데, 표준어의 ‘떡조개’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지와 지리상 거리가 먼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준어의 ‘떡조개’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방언에서의 ‘오분자기’에 대한 대표적인 형태는 선행 형태로 ‘오분’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들인데, 대체로 ‘오분자귀, 오분제기, 오분자기, 오분작’ 등의 어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오분자기’와 ‘오분제기’<sup>39)</sup>는 움라우트에 의한 분화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오분작’은 ‘오분자기’에서 어말모음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다만, ‘오분자귀’는 어간말 모음이 ‘귀’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이유로 ‘귀’가 형성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sup>41)</sup>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분자기’를 방언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준어는 ‘떡조개’로 표시하였다.

- (18) ㄱ. 오분-자기: ‘떡조개01’의 방언(제주).  
 ㄴ. 떡-조개01: 작은 전복.

39) 제주방언에서는 ‘귀’와 ‘기’가 합류되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송상조(2007)에 제시된 ‘오분제기’와 ‘오분제기’는 제주어 표기법으로 본다면 ‘귀’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오분자기’와 움라우트 관계를 생각하여 ‘오분제기’로 표시한 것이다.

40) 이 방언에서는 어말모음의 탈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41) 국어사에서 ‘ㅣ’가 ‘귀’로 실현되는 모습이 드물게나마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포기’를 뜻하는 중세국어형 ‘퍼기’는 18세기 이후 문헌에서는 ‘퍼괴’나 ‘퍼귀’의 형태로 등장한다(예: 叢 퍼괴<동문유해(1748) 下: 44b>, <몽어유해(1768) 下: 37a>, 퍼귀<악학습령 867>, <오륜행실도효, 44a>, 퍼귀 叢<한불자전 356>.

위의 예에서 ‘오분자기’는 ‘떡조개’의 제주방언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떡조개’의 뜻풀이에서는 ‘작은 전복’으로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서 ‘작은 전복’이라면 ‘전복’을 크기에 따라 형태적 특징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은 ‘전복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 즉 ‘어린 전복’이나 ‘크기가 작은 전복’을 의미할 것인데, 이러한 설명은 ‘오분자기’의 의미와는 잘 맞지 않는다. ‘떡조개’나 ‘오분자기’는 전복의 일종으로 ‘크기가 작은 종’을 말하는 것이지, ‘전복의 성장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전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42)</sup> 그러므로 ‘떡조개’의 뜻풀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분자기’의 표준어형인 ‘떡조개’가 실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인지 쉽게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오분자기’와 ‘떡조개’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 (19) ‘떡조개’가 ‘오분재기’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떡조개’를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 규정 제25항은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분재기’를 버리고 ‘떡조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작은 전복’을 말한다.

제25항은 제17항에서와 같이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일으킨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가령, ‘참감자’를 ‘고구마’와 병용시키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참감자’를 버리고, ‘고구마’만을 살린 것이 그 일례다. 제17항은 발음상으로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였음에 반해, 여기에서 다루는 단어들은 ‘고구마’와 ‘참감자’의 관계처럼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다.

위의 설명에서 ‘떡조개’가 ‘오분재기’에 비해 널리 쓰인다고 하였는데, 실제 떡조개(흰조개)가 아닌 ‘오분재기’의 방언으로 ‘떡조개’가 나타나는 지역이

42) 그러나 대부분의 패류 도감에는 ‘떡조개’는 떡조개02를 설명하고 있고, 실제 ‘오분자기’에 대한 표준어로서의 ‘떡조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어느 곳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다른 ‘패류도감’이나 ‘백과사전’에서도 ‘오분자기’가 구체적으로 채집되는 곳과 이를 ‘떡조개’로 부르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오분자기’와 관련 있는 여러 어휘를 검토하여 ‘오분자기’의 어휘사를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관련 있는 여느 패류와 의미 관계를 살펴보고, ‘오분자기’의 내적 구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어원을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방언에서의 ‘오분자기’는 전복과에 속하고, ‘전복’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전복’보다는 작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학문적인 분류상으로 ‘오분자기’는 ‘전복’과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제주방언 화자들은 이 두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로 이해한다. 즉, ‘오분자기’와 전복은 지시 영역이 다른 대등어로 인식하고 있다. 또, ‘오분자기’는 ‘떡조개’, ‘조고지’와 방언의 차이에 따른 동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오분자기’는 단일어라기보다는 복합어이며, ‘오분’과 ‘자기’로 볼 수 있다. 선행 요소 ‘오분’을 표준어 ‘떡조개’와 대응시켜 ‘떡-’과 관련된 의미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떡-’의 두 가지 의미, ‘크다’와 ‘작다’는 ‘오분자기’의 ‘오분’과 부합되지 않는다.
4. ‘오분’은 관형사로, ‘자기’는 명사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오분’은 동북방언에서 확인되는 \*오홀-[ㅅ]에 관형형 어미 ‘-니’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 ‘자기’는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자개’[貝]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오분자기’는 ‘전복’에 대한 새김 표현이며, 곧 ‘전복’의 다른 이

름으로 추정된다.

5. 제주방언에서 ‘오분자기’는 ‘오분자귀, 오분재기, 고망바르, 떡조갱이’ 등 다양한 방언형이 존재한다. 이 중 ‘오분’류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고망’계는 서귀포 일부 지역, 그리고 ‘떡조갱이’는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6. ‘오분자기’의 사전적 기술에서 뜻풀이를 ‘작은 전복’으로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는 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7. ‘오분자기’는 제주도 방언에서는 다른 어휘와 형태적인 유연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고립어인데, 이것은 다른 지역어의 차용으로 볼 수 있다.<sup>43)</sup>

---

43) 이러한 추정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이러한 논의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주방언에는 ‘오분’이라는 형태와 ‘자기’라는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음운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다만 ‘오분자기’가 전국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고립어로서 아마도 매우 오래 전의 언어 층위를 반영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郭忠求(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20世紀 러시아 Kazan에서 刊行된 文獻資料에 依한-』(國語學叢書 20), 太學社.
- 郭忠求(1996), 「國語史 研究와 國語 方言」, 『李基文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45-71면.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 김수현(2012), 「겨드랑이의 어휘사」, 『언어와 정보 사회』 1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146면.
- 김순자(2014), 『제주도 방언의 어휘 연구』, 박이정.
- 김양진(2015), 「착하다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93, 한국언어문학회, 33-54면.
- 金周弼(1993), “『金剛經三家解』”,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安秉禧 先生 回甲紀念論叢), 文學과知性社, 187-208면.
- 김홍석(2008), 『근대 국어자료인 두 어보,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 연구』, 한국문화사.
- 민패류박물관(2001), 『신 원색 한국 패류도감』, 도서출판 한글.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梁柱東(1954), 『麗謠箋注(訂正版)』, 乙酉文化社.
- 여찬영(1995), 「우리말 패류 명칭어 연구」, 『한국학논집』 2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35-155면.
- 윤평현(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 이동석(2013), 「‘봉’의 음가론」,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71-118면.
- 이병근(1996/2004), 「질경이(車前草)의 어휘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이병근(2004)에 재수록.
-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 이태영(2012), 「전라방언 ‘겁나게’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

어문학회, 69-90면.

鄭承喆(199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國語學叢書 25), 太學社.

정문기 옮김(1977), 『茲山魚譜-흑산도의 물고기들』, 지식산업사.

제주특별자치도 편(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산진흥원(1999), 『有用軟體動物圖鑑: 韓國沿近海』,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2004), 『해양식물대백과(식용어패류)』, 평범사.

홍기옥(2013), 「조개류 생물어의 어휘 분화 양상 연구-남해안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9-204면.

홍기옥(2014), 「바다 생물어의 의미장 구축 연구-남해안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대화(2011), 『1960년대 육진방언 연구(자료편)』, 역락.

황선엽(2009), 「‘강아지풀(莠)’의 어휘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421-446면.

小倉進平(1934), 朝鮮語に於ける外來語(上), 季刊 外來語研究 2-2, 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1975), 95-123면에 재수록.

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1975), 『小倉進平著作集』 四, 京都大學國文學會.

오구라 신페이(2009), 『조선어 방언사전』, 한국문화사.

【Abstracts】

## Study on Lexical History of '*Obunjagi*'

Bae Young-hwan

This research is aimed at studying the term '*Obunjagi*' that appears in Jeju dialect in verbal neologism and analyzing the origin of thereof. Also, this research reviewed the historical change in form of the word 'abalone', a food similar to '*Obunjagi*'. In Jeju dialect, there's a different point in respect that '*Obunjagi*' has a similar shape as 'abalone', however the size of it is smaller than an abalone. '*Obunjagi*' can be divided into 'Obun' and 'Jagi,' in terms of forming the word. The part 'Obun' has two possibilities. Firstly, 'Obun' can be said to be the form combined with '오불-[全], that is found in the northeast dialect and modifier ending '-ㄴ'. On the other hand, 'Obun' can be the meaning related to 'Tteok-', by associating with the standard language 'Tteokjogae'. 'Tteok-' had two meanings, 'big' and 'small', which does not accord with 'Obun' of '*Obunjagi*' well. 'Jagi' is presumed to be a change type of 'Jagye'[貝] taken from Korean during the Middle Ages. Accordingly, '*Obunjagi*' is presumed as another name of 'abalone'. Therefore, the words that belonged to 'abalone' are presumed to have had the native words affiliation such as 'be/bit' system and '*Obunjagi*' system. On the other hand, '*Obunjagi*' has various dialects such as 'Obunjagwi, Obunjaegi, Gomangbareu, Tteokjogaeng-i'. Among them, 'Obun' type is found in the whole area of Jeju, while 'Gomang' in some area of Seogwipo, and 'Tteokjogaeng-i' in some parts of Jeju. Besides,

there's a problem that dictionary description of '*Obunjagi*' was explained as 'a small abalone'. '*Obunjagi*' is different from abalone, accordingly, when it is explained as 'a small abalone', it could be misunderstood as 'a young abalone'. '*Obunjagi*' is a kind of an isolated language that is not confirmed with morphological flexibility with other vocabulary in Jeju diale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orrowing of another regional language.

Key words : *Obunjagi*, Lexical History, Jeju Dialect, Jeonbok, Tteokjogae, Hyponymy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